

전여대협

9,10월 사업계획서(토론회)

받는 이: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여학단위

주는 이: 5기 전여대협

용도: 전여대협 9,10월 사업의 방향과 단위 방향에 대한 토론회

<1>. 들어가며

방중시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이시기에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것은 바로 이후에 있을 선거인 것 같습니다.

작년 말 학우들에 의해 대표자로 설 때 했던 학우들과의 약속을 즉 정책자료집을 펴 놓고서는 하나들 점검해 봅니다. 물론 눈에 띄기 쉬운 큰 대중사업을 중심으로 보는 초점이 맞추어지고 나면 두 번째로 복지공약을 봅니다. 그와 동시에 마음이 급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그렇게도 서로의 입을 통해 이야기되었던 운동의 대중화가 대중사업 몇 개로 실현된다면 그렇게 쉽게 된다면 애초에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학우들에게 일년의 평가받고 검증 받는 과정으로 선거가 되려면 그것 또한 우리 일꾼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꾼들을 만나보면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입안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일까 가 현실적인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라고 털어놓습니다.

방만하게 대중사업을 나열할 것인가 원칙을 버릴 수 없기에 또다시 나열식 투쟁으로 하반기를 구성할 것인가? 의 편협한 사고가 아니라 더 많은 여학우대중이 좋아하고 더 많은 여학우대중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심으로 사고하되 그들의 근원적인 고통을 이해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대중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혜로운 대중들 속에서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만큼만 살자.

8.15범민족 통일대축전으로 거족적인 성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통일선봉대의 공로가 빠져서는 온전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작년 19명으로 애초에 조직화되었던 전여대협 통일선봉대가 결국 적들의 무자비한 해산과 연행의 과정에서 단 4명의 대오만이 8.15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반면에 올해는 적들과의 보위에서도 승리를 이루면서 18명의 전대오가 서울대에서 감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8월 1일부터 보름에 달하는 장구한 일정속에서 모든 투쟁에서 여학우 특유의 배포와 강단짐으로 선두에서 공격적인 투쟁을 만들었음은 물론이거니와 통일선봉대 대오내의 단결은 기본적인 동지애와 함께 사상적인 일치를 이루면서 적들의 어떠한 이간질과 분열을 꾀하는 탄압이 의도 변하지 않는 대오로 뭉쳐 있었습니다.

이것은 곳곳의 모범적인 대원들의 투쟁에서도 보였지만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대장님과 실무단장님의 모범적인 활동으로 모든 대원들은 그것을 따라배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선봉대 전대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단시간의 달콤한 잠자리를 청하고 있는 때에 전여대협 통일선봉대는 전에 논의했던 통일의 과제를 여학우운동의 관점으로 토론하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창발적인 투쟁의 과제를 내어왔

으며 또한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대장님과 실무단장은 대원들이 자는 틈을 타서 대원들의 하루 총화서를 일일이 꼼꼼하게 읽고서는 직접 편지봉투에 대원들 대학의 주소를 쓰시고 우표를 부쳐 보내면서 대학에서 일꾼들의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총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대학내의 다른 일꾼들을 고무추동하게 하였으며 총화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날 투쟁하는 짬짬이 일꾼들의 고민을 나누려 하였습니다. 하루에 많이 지면 한시간의 수면시간이었으나 절대 지친 몸을 내색하지 않았으며 집회도중 졸고 있는 대원들을 하나들 다독이며 깨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중을 만나고 대중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주인이 되는 매사업을 고민할 때 우리는 말만 큼 실천은 그다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여대협 통일선봉대의 대장과 대원들만큼만 산다면 감동하지 않을 대중은 없으며 그래서 믿고 따르지 않을 대중은 없습니다.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데 자신이 헌신하지 않고 앉아서 구하려 한다면 백날 해도 그 운동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총화와 평가는 따로 제출)

<2>.정세 (여성정세를 중심으로)

1-7. 상반기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짓밟히는 과정에서 투쟁으로 조직을 형성하고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23일자 신문에는 아주 통쾌한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노동부는 22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여성부당해고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ㄷ제분은 결혼퇴직을 강요받아 시작한 여성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가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ㄹ호텔은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룸메이드의 장년을 낮게 정해 퇴직을 강요하다 노사분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하도록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특히 ‘사내부부 가운데 1인’ ‘딛벌이부부 중 1인’ 등을 명에 퇴직자 모집 또는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제시해 여성노동자의 퇴직을 강요하거나 여성의 장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낮게 정해 퇴직을 강요하는 것을 집중 단속하도록 했다.”

이는 상반기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물로서 여기서 ㄹ호텔은 롯데호텔을 말하는 것으로 롯데호텔의 45세 이상의 장기근속 8년 이상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 이유하나만으로 일방적인 기준하에서의 사직을 강요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초부터 매일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해고된 장기근속노동자라는 것은 이렇하여 ‘장기 아르바이트’인데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해고가 단지 여성!!아르바이트직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정규직 노동자들과 남성 아르바이트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해고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용자측이 얘기하는 근거는 바로 8년간의 장기근속을 하면 업무상 근무태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인력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 근무시간과 업무 전반이 아르바이트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가 동일하며 해고 기준 중의 하나인 ‘조기 장년 45세’라는 조항은 취업규칙에도 없는 근거를 ‘회사의 방침’이라는 명목으로 적용시켜 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는 단지 롯데만의 그리고 ‘아르바이트직’의 한계가 아니라 여성들을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켰던 정권이 이제는 아예 밥줄마저 끊어내고 있는 현상이며 이는 바로 정권이 만들어낸것과 다름 아닙니다.

여성가장실직자를 위한 정책을 내온답시고 떠들썩했고 노동부산하 여성관련 부서를 만들겠다고 선전했던 정권이 하나둘 거품공약으로 만들면서 반여성적인 본질을 보여준 것에 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집단의 힘만이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이제 여성노동자들의 실천적인 투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1-나. 아직도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은 너무나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종로서 성추행 고소투쟁)

지난 6월 24일 현대중기산업노조의 집회에서 참석자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명의 여성들을 성추행하였고 그들 중 3명이 종로서를 상대로 고소투쟁(서울지방검찰청에 김영화 전 종로경찰서장과 성명불상의 전경 다수를 독직폭행 및 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회 광경을 목격하고 약 30여분 가량 집회를 구경하다 졸지에 연행당한 한 여성은 해산통보 없이 밀어닥쳐 방패로 찍고 곤봉으로 마구잡이 때리는 강제연행 과정에서 전경이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끌어올리고 한꺼번에 달려들어 가슴을 만져대는 성추행을 당했고 심지어 어떤 전경은 “무슨 짓이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절벽 같은 가슴 만지면, 좀 어때냐?”는 치욕적인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또한 갑자기 옆구리 양옆으로 손이 들어오더니 양가슴을 마구 주물러대어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노동자는 너무나 소름이 끼친다. 폭력 연행 상황에 대한 공포까지 겹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내 가슴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항의했으나 갑자기 버스안에 불이 꺼지고 여기저기서 심한 반말과 욕지거리가 터져나와 더 이상 항변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또다른 여성노동자는 웃웃이 말려 올라가 가슴이 다 내보이는 상황에서 전경들이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필사적인 저항을 하자 눈앞에 있던 전경은 “너, 내가 아까 찍어봤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마구 구타했고 심지어 수명의 전경들이 둘러 싸고 군화발로 짓이기면서 침까지 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해자들이 성추행을 자행한 전경의 소속과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버스안의 불을 끄고 곤봉으로 창문을 두드리면서 욕지거리와 반말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여성들을 위협했고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당시 진압 작전의 책임자로 현장지휘를 했던 사람이 묵인 방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은 당연합니다.

이들의 고소에서 김영화 전 종로 경찰서장(현 서울경찰청 경비 2과장)은 “평소 의경들을 잘 훈련시켜왔기 때문에 의경들이 그러한 일을 했을리 만무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96년 연세대에서의 진압과정 중 우리 동지들의 성추행했던 공권력의 그 치떨림이 되살아나는 듯 합니다. 자신이 지휘했던 ‘작전’에서 다수의 여성들이 성추행 당했음을 호소한다면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 마땅할 진대 80년대 부천시 상고문 사건에 이어 96년 연세항쟁때 성추행 그리고 가깝게는 철거민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철거과정에서 술하게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까지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은 일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는 진압이라는 공포적인 상황에서 권력을 이용한 인권침해에 두말 할 필요가 없으며 성추행이든 강간이든 그 경중의 수준을 따지기 전에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말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여성의 성적 기본권을 정권에 의해 박탈 당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소고발 투쟁은 소중한 것입니다. 단지 계기적인 투쟁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투쟁이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성적 자기 권리와 인권 그리고 생존권적인 요구의 투쟁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1-드. 하반기 여성노동대중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의 투쟁은 더 큰 덩어리의 조직의 형태로 상승발전될 것이다.

“여성해방! 노동해방!”

이것은 8월 29일 있을 전국 여성 노동 조합 창립총회와 출범식 및 여성노동자 한마당의 서두 구호입니다.

여성노동조합은 기업과 직업, 지역을 뛰어넘는 단일 노조로 그간 열악했던 여성노동자들의 고용형태나 고용실태에 대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으로 여성민중들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에 다퉈야 합니다.

그간 미국의 구제금융이후 일종의 경제공황이라 할 수 있는 식민지 경제의 몰락을 겪으면서 여성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입찰치로 내팽개쳐지고 있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수준과 형태를 보면서 그 사회의 여성의 인권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한국사회에서는 그동안 기대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은 물론이거니와 여성에게는 노동조건마저 보장받지 못해왔었고 이제는 전국을 아우르는 단일 노조를 조직 건설함으로써 임시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노동자, 심지어 실망노동자로 분류되도록 조장해왔던 비정규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이면서 여성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될 것입니다.

2-7. 주한 미군의 민행에 대한 전 국민의 폭로와 투쟁은 작은 성과물을 만들고 있다.

(허주연씨 살해미군 구속처벌 투쟁의 진행과정 통신총화)

98년 1월 16일 허주연씨를 살해하고 방화했던 미군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1심에서의 10년 형량에 대해 무기형을 주장한 검사와, 5년으로 감형해줄 것을 주장한 피고측 변호인단의 주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소심 이유중 무죄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의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따라서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고 형량은 피고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한 점에서 그 죄가 중하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1심에서의 10년형은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와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 1심에서의 1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나 1심 형량이 그대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판사가 조금 급진적인 성향이었다고 보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투쟁의 성과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식민지 정권과 사대매국정권하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으며 성과물은 더 힘찬 투쟁을 조직하는 발판으로 반드시 이용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2-8. 그러나 여전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민족의 참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

돌실마을 사태

충북 진천 돌실마을 상공에서는 미군 헬기 6대가 저공비행으로 농작물과 가축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는 96년 이후 이 마을에서만 두 번째라고 합니다. 당시 헬기 비행 고도는 2,30미터 정도의 근거리였으며 헬기가 일으키는 바람에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놀란 젓소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다리에 상처가 나고 꼬리가 질러나가기도 했으며 농작물의 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를 보다못한 이 마을 이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며 헬기를 향해 후레쉬를 흔들자 공포탄 4-5발을 쏘며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은 공포스러운 하룻밤이 지나서야 미 항공대 소속 헬기들이 훈련중이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는데 어떤 목적으로 진행한 훈련이었던지 등에 대해서는 보인이라는 명목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 한 농가의 임신중이었던 32마리중 22마리가 사고후 5일만에 집단 유산을 했고 4마리는 소음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급성 유방염과 관절염이 발생하여 결국 도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6일째 되던 날엔 기르던 개가 예정일 보다 15일 일찍 조산하였는데 새끼 7마리 모두 죽은 채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는 한 농민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10여년에 걸친 품종개량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미군에 의한 피해는 한두명의 개인이 아님을 압니다. 하루 5건 이상의 미군범죄행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는 한반도를 살아가는 한민족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침략자 미국의 식민지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한미행정협정에서 한미투자협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빼앗긴 우리의 주권을 모든 계기와 조건을 가지고 투쟁으로 찾아야 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말만 무성한 한미행협(SOFA) 재협상

4월 14일 한-미 주최 오찬 연설에서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측에 무상사용 건물의 조속한 반환과 한미행정협정 개정 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김대중정권이 들어서 처음있는 일로써 각계가 집중했으며 일말의 기대도 걸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미행협 개정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를 두고 현재 SOFA개정협상을 미국측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나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SOFA는 1967년 발효되어 1991년 한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규정에 대한 부분손질에 머물러 재개정 요구가 계속 있어왔고 1995년 11월 다시 개정회담에 들어가 몇차례 협상이 진행되다가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96년 9월 7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재개정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국정권의 적극적인 개정의지가 없는 이유도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이미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손아귀에

서 높아날 수 밖에 없도록 한미투자협정등 각 부분에서 이를 고착화하고 있으며 미국에게는 한미행협을 개정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식민지 지배정책이 변화하지 않고 정권이 사대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투쟁이 없다면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양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4월 30일 부산과 광주 미문화원이 반환되는 것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정책에 변화가 생겼다가 아니라 분명 "미국의 입장에서"용도가 폐기된 곳이라고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밝혀왔으며 그 외 미국의 유관계시설을 비롯한 미군기지 땅 그리고 공여지 등이 부당하게 미군이 잠식하고 있는 등의 모순은 우리의 자주권을 찾는 투쟁으로 한시도 놓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ㄷ. 미국의 한반도 전쟁발발을 위한 준비는 이제 실전이다.

한총련 9, 10월 사업계획서의 별첨자료 (정세) 참조

3-ㄱ. 일본의 요지부동(위안부 문제를 두고)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는 어디까지인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변국입니다. 따라서 일본 헌법 제9조에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무적,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 문구 때문에 일본이 평화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일본이 이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저들의 야망을 합리화하는데 그 욕심이 있습니다. 즉 패전한 이래 헌법상 포기하였던 교전권을 되살리고 군사비 지출을 대폭 증강하며 자위대 무력의 최신현대화와 장거리와 심지어 신형장거리 미사일과 첩보 위성 개발에 까지 들어간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앞바다에서는 관행을 깨트리고 일본 해상 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해상 합동군사훈련이 감행되었습니다. 한일간의 해상 합동군사훈련의 실시로 일본은 한반도 지역과 해상에 대한 자연 지리적 조건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 근해에 대한 감시 경계 작전과 해상 수송, 한국군과의 군사공동작전 등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이 한일군사동맹 형태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아시아판 나토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마무리 되어 자기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한일군사동맹과 삼각군사동맹은 가설이 아니라 정설로, 아니 눈 앞의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8월2일부터 14일간 제주도 동남쪽 해상에서 합동해상군사훈련이 자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각각 국기와 국기로 제정하고 말았습니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당연한 숙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전쟁책동을 막아나서기는커녕 길을 넓혀주고 있으니 그 옛날 침략의 역사를 인정할 리 만무합니다. 이제 곧 일본은 다시 한반도 내에서 패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 사과가 웬말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나라의 하늘에 있는 지난날 일본군대로 능욕 당하고 무참히 살해 당한 20만의 여성들,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 민이 서러울 뻔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 앞에 지은 그 엄청난 죄에 대해 솔직한 반성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오펜케들이 군사적 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을 이르고 현해탄을 건너 또다시 이 땅으로 돌려 돌려 하고 있는 것은 천하에 있어서도 인텔 말입니다.

또한 생존해 계신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 할머니는 아직도 서슴치 않는 칼날을 세우고 일본 살인모리배들에게 그 죄를 사죄 배상 받으려 매일같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 해외의 철천진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 결탁을 짓부수고 반드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죄를 위해 일본은 한민족에게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3-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세계정세

일본계의회원 삼정 결의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한 총 필리핀 등 아시아 11개국이 합의한 지지할 인고 있으며 일본 '한일합의안'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세계 여론을 무시하고 과거 자신들의 전범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경고이며 "독일 등 다른 모든 전범국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죄한 데 반해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과거 청산없이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의안을 상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유엔인권추진모임 소위원회에 일본 위안부 배상문제가 한 일, 중 일 평화조약 등

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지의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5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듣는 것 만으로도 쾌재를 부를 만큼 반가운 소식이며 당연한 결과입니다. 외국의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가 되었음과 세계여론이 이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무슨 배짱인지 한반도 재침의 야욕에 침흘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터져나올 전세계 민중들의 일본을 향한 아우와 책망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에 오리발을 내민다면 일본은 반드시 교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4. 청년여대생의 교육의 현실

“취업할 곳은 많으나 원하는 곳은 없다.” “공부가 안되면 이성교제이라도 목숨걸어보자.”

이것은 여대생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오고가는 이야기입니다. 유흥업소가 폭주하고 소비지향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들의 문화도 아니고 그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이러한 흐름이 본질인양 왜곡되면서 그러한 현상을 지향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여대생의 의식흐름과 생활양태가 대학때만큼은 흥청망청 놀아보아야 한다와 그러나 취업은 그래도 인텔리인 만큼 전문직종 혹은 대기업으로 진출해야 한다가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학내 소비지향적인 문화는 이성교제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서도 나타나는데 인간관계를 중시하기 보다는 순간의 감정에 지배당하면서 쾌락적인 만남이 성행하고 그곳에서 성개방이 아니라 성문란의 현상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는 서로가 무지한 상황에서 대학내의 성주행 성폭행등을 만들어 내면서 결국 더 많은 여성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성에 있어서 자기권리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면서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은 실제 삶자체를 포기하거나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반드시 남녀가 공히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교육교양되어야 함과 더불어 법제도적으로 보강되어야 합니다.

교육개악 5개년 계획등 미국에 의한 교육침탈이 청년학생들의 삶을 개별, 개인으로 몰아냄과 더불어 대학내 성문화의 척박함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 총기치와 해설

1. 총기치

**범민족통일대축전의 성사와
전여대협 통일선봉대의 자랑스런 활동을
학우대총과 민중들과의 호흡에서 체험하고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남북해외 3자의 위안부 문제 공동투쟁을 계획하고
민족대단결 실현하여 미일과 김대중정권의 한반도 공멸의 음모를
50만의 이름으로 파트내자.**

2. 해설

범민족 통일대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여대협 통일선봉대의 위용찬 투쟁은 모두가 따라 배우겠다는 의지를 심어줄 만큼 모범적이었습니다. 통일선봉대 대원 하나 하나의 결의가 담긴 총화편지를 대학에서 받아보면서 함께 읽히고 범민족통일대축전을 준비하였으며 본행시에 들어서서도 서울대 안에서 가판대를 설치하고 전국의 일꾼들이 뛰어들면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3자공동해결을 외치는 여학일꾼 자신의 모습이 여학생운동의 자부심으로 심어지기에 충분했으며 감동과 결의의 물결이었습니다.

상반기 자기 운동의 성과를 이제야 찾을 수 있겠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일꾼들도 있었으며 이후 운동의 대중화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려진다고 솔직히 밝히는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마땅히 민중들의 반미 반전 투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투쟁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일으켜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는 일꾼들의 심장으로 준비된 투쟁의 신심을 진정 학우대중속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하며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승리의 감동을 느낀 사람들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는 반드시 승리로 갈수있는 투쟁을 만듭시다.

<4>. 9, 10월의 목표

1. 먼저 일꾼들 부터 대중들 속에 호흡할 수 있는 준비자세를 갖추시다. (혁명적 세계관은 학우 대중과 민중들의 삶에서 찾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방중동안 고민해왔던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주체가 어떤 입장과 자세를 가지는냐는 지금시기 중요합니다. 단위 여학일꾼들의 고민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를 중심에 둔다면 실천되지 않는 고민으로 남을 것이고 운동의 대중화를 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학우대중을 중심에 두고 민중의 삶을 중심에 두고 사고 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간의 운동대중화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학우들의 바다에 뛰어들어 풀어낼 수 있도록 합시다.

2. 상반기 통일투쟁과 통일선봉대 기지촌 활동의 성과를 반드시 이을수 있도록 합시다.

서울을 제외하고 각 지역별로 기지촌 활동을 다 진행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여대협이 함께 준비했던 기지촌 활동을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꼬집어내면서 이후 후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준비과정에서는 얼마큼 연대사업의 관점으로 진행했는가? 즉 기지촌대원들을 제외한 여대협 단위 모든 일꾼들이 기지촌문제에 대해 내용적으로 공유하고 합의하고(여대협 교양학교) 진행했는가? 각 대학은 얼마큼 더 많은 여학우대중에게 선전의식화하면서 함께 하려했는가. 등으로 평가하면서 실질적인 지역 여대협의 성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이후 후속활동으로는 기본적으로 활동보고는 했을터이고 기지촌활동에 실제 결합하지 않은 일꾼들을 중심으로 '하루기화대'를 조직화한다든가 보고대회를 해서 교양의 자리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전여대협 단위로 진행하다보니 성과 뿐 아니라 한계 또한 더 많았습니다. 명확히 정리해서 후속활동에서 극복하고 내년을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3. 운동 대중화의 요구에 맞는 대중운동의 정형을 하반기 광범위한 여학우대중과 어우러지면서 꽃피워 냅시다.

하반기는 날수로 따지면 짧은데 상대적으로 각 학교마다 대동제니 문화제니 해서 크게 실무로 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상반기와 방중에 결의했던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중속에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운동의 관건이라 생각하고 달려들어야 할것입니다.

4. 반미 반전 반일 투쟁의 유력한 고지 일본군 위안부 3자 공동해결을 기필코 이루어냅시다.

범민족 통일 대추전과 전여대협 통일선봉대의 활동에서 많은 대중의 지지와 합의 속에서 3자 공동해결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숙 미해결운동이 지금까지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상흔을 떠나서는 부생으로 위안부 문제를 전민족이 하나로 일어나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파토내는 투쟁으로 진행할 때 제 역할 속에서 힘있게 복무하고 있는 것을 겁

증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에 기필코 일본이 무릎꿇고 사죄한다면 더 이상 한민족이 두려워 전쟁이니 뭐니 꼬장질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책동 분쇄투쟁에서 여학생운동의 막중한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필코 위안부 문제 3차 연대로 공동해결을 이루어내도록 합시다.

5. 윤금이의 삶을 다시한번 심장에 새기고 우리의 투쟁으로 민족적 수치와 모멸감을 반전투쟁으로 만들어냅시다.

매년 아니 수시로 자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살인 강도 강간등의 만행에서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여성들은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아니 주한미군이 철수 될 때까지 아픔을 분노로 투쟁할 것입니다. 윤금이 씨 기일이 올해로 7주기를 맞이하면서 그간 더러운 미군화비에 짓이겨간 한민족의 여성들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1차 피해자이자 수치와 모멸감을 안으며 살아가는 한민족의 모든 여성들의 분노를 다시한번 심장에 새기면서 투쟁으로 만들어갑시다.

<5>. 대중 선전 의식화 과제 (추후제출)

1. 공창제도를 다시 입법화하겠다는 음모

-공창제도의 발생배경과 현시기의 음모

2. 반미 투쟁을 활성화할데에 대한 여학생회 내용

-주한 미군에 의한 여성의 인권유린

-제국주의의 성에 의한 침탈 음모

3. 반일 투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선전의식화 과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현시기 일본이 발뻘하고 있는 것은 군국주의 부활음모와 전쟁책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4. 기지촌 여성의 삶을 통해 민족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의 연관지점을 찾자

-제2의 정신대, 기지촌 부락이 형성되는 과정에 정권과 미국의 역할은 어떻게 작용했으며 그 저의는.

5.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의 자료집 형식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는 대학별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대중 투쟁 과제

1. 일상적인 투쟁을 다시 활성화할 데에 대하여

◀선전전으로 대학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정세에 맞는 선전의식화내용과 총여학생회 사업을 총화하는 자리로 끊임 없이 창조적으로 진행합시다.

◀금요일과 수요일은 전단위 여학생들이 아침부터 함께 시작해서 학습과 대자보 선전, 그리고 학우들 만나는 시간까지 조직화해서 집단적으로 진행했던 모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활용합시다.

ㄱ. 반미 투쟁

· 금요집회 금요선전전

- 반드시 적극화할 데에 대한 결의로 시작합니다.
- 각 지역별로 항의방문할 수 있는 상징적인 미국의 연관건물이 있습니다. (충청여대협은 군산으로 집중)
- ㄴ. 반일 투쟁
 - 수요집회, 수요선전전
 - 수요집회는 대학별로 혹은 지역별로 날을 정해서 상경집중투쟁합니다.

2. 위안부 문제 완전해결 2000년 청년학생 전범법정 성사를 위한 남과 북, 해외 공동 범민족 서명운동

- 총화: 10월 4일 민족의 날
- 총화방도: 각 대학별 자주교류를 사전에 진행하면서 서명운동의 흐름을 서신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10월 4일 대중적인 민족의날 집회 공간에서 공언하고 공유합니다.

3. 민족대단결실현 조국통일 투쟁의 주역으로 <자주교류 투쟁>

- 반드시 오행안에 한번은 한다. 그리고 민족의 날을 기점으로 한다 는 결의로 진행합니다.
- 방도: 여학우 북핵유적 답사단을 모집하거나 서명운동의 공간에서 자주교류를 합의할수 있도록한다. (백지대자보등)

4.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 투쟁을 학우들의 것으로 만들자.

얼마전에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별로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을 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냥 좌시하고 있어서 성과물을 챙기고자 했던 단위는 지금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은 되었으나 법안의 내용이 응당한 처벌의 수준이 못되거나 실효성이 없고 강제성을 띄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여학우들을 비롯한 학우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학칙으로 제정되어도 적용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학우들의 힘으로 학우들의 함께하고 여학우들의 주인으로 되면서 학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대학별로 올 상반기 진행한 흐름을 학우들에게 공개하고 이후에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조적인 방도를 제출하면서 힘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의견개진 운동

대학별로 진행되는 한총련의사개진운동에 한면을 이용하여 대학총여학생회별 의견개진운동을 진행합니다.

6. 전여대협 50만이 행동해야 한총련 100만이 행동한다.

- 내용
우선은 대학내 준비흐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행동의 날 투쟁구호에 여학단위는 이것을 결부시킵시다.
'신 5027-98작전계획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폐를 위한 한총련 백만학도 총투표와 행동의 날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완전해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 반대'

■형태와 방도

- 여학우들의 특성을 살린 형태의 행동으로 고민하면 좋을 듯합니다.
- 여학일꾼들이 페이스페인팅을 해서 태극기 문양을 그린다거나 '전민족의 힘으로 위안부 문제 완전해결'이라는 구호를 쓴다든가 투쟁구호가 쓰여진 풍선을 나누어 준다든가 등등

7. 대학별 대동제나 여성문화제는 관점을 바로세워 내용의 혁신과 방법의 창조성으로 다수대중의 참여를 계획하자.

- 관점
9월 말 10월 초에 있을 여러 가지 형식의 여성문화제들은 지금껏 기획과 내용이 일정 마련되어 있는 과정일 것임

니다. 운동의 대중화를 이야기 하면서 하나의 작은 대중사업을 하더라도 학우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장으로 되게 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 일 것입니다. 대중에 대한 제대로된 관점과 입장을 가질 때 대중의 창조적인 능력을 재단하게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학우들의 지혜를 발동하여 대중사업을 단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뽀뽀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뽀뽀 있다는 것이 단지 머리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는 준비과정과 사업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다지 많은 숫자가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고 중요한 것은 원래 조직화되었던 대중들의 역할을 배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이후에 여학우대중이 주는 평가는 승리적일 것이며 이후의 계획도 힘차게 내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도 너무 소원하게도 대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짜들어가는 대중사업을 만들어 봅시다.

실제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면서 성과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내용

내용은 앞서 밝힌 전쟁책동 분쇄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제로 계속되어오던 민야의 근원 주한미군 철거로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않고 군국주의 부활음모 확책하는 일본을 반대하는 투쟁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보면 또 다시 막연해 지는 듯한 내용을 어떻게 학우들과 함께 실천하고 표현해내는 방법이 있을까를 궁급해 할 것입니다.

■방법

예를 들면 경북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위안부 문제 모의 국회'를 개최한다든가 '낮은 목소리' '구멍 뚫린 주권' 등과 같은 영상물을 야외에서 상영하면서 준비된 내용물을 영화 리플렛 형식으로 만들어 위의 내용을 싣고 영화 관람과 연관시켜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혹은 위안부 할머니의 큰 그림의 형태를 그려서 엽서크기로 잘라 학우들에게 색칠할 수 있는 과제를 주면서 나누어 주고 다시 큰 그림을 완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그림엽서에 번호를 매기고 추첨하여 위안부 할머니 뺨지를 증정하는 형태를 가미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정신대 할머니 노래공연 (홍순관)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8.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지난 96년 연세대 성추행 진상규명투쟁이 법정투쟁으로 이어지며 활발해지는 듯 했으나 항소마저 기각되면서 일 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정세에서 서술 되었던 사태만큼은 그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작용되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모욕당하고 있는지 폭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투쟁이 없다면 또 언제 기만적인 정권에 의해 무용이 될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제 객관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쾌제가 아니라 계기와 조건을 잘 살린 투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각 대학에서 규제학칙제정을 만들기 위한 의식화의 과제로 성에 의한 권력의 횡포에 대해 알려왔으며 이제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나가면서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합시다.

■관점과 내용

먼저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을 학우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96년 연세항쟁에서의 성추행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청년학생의 통일투쟁을 무력으로 막아나서는데 있어 여성들의 탄압도구로 사용되었던 성추행이 역사로 보자면 부천서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현재는 폭력배로 구성된 철거반들의 빈민 철거 과정에서도 강력히 항의하는 우리의 어머니들을 빈번히 성추행해왔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힘으로 극도의 공포를 형성해 놓고 그 상황에서 노소의 구분없이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파렴치한 행각은 말그대로 치가 떨리게 합니다.

기획선전의 형식이나 여성문화제 혹은 학내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의 흐름에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의 현실태를 고 발하고 학우들과 함께 합시다.

■생도

- 지금 학단위에서는 서울에서 벌이고 있는 고소고발투쟁에 연대하는 형식으로 투쟁을 만들어갑시다
- 심명서나 항의서를 조직화한다.
- 지어여성단체와 함께 항의문양 작성하여 보내고 사과문을 받아내는 형식으로 합니다.
- 기본적으로 대자보 형식의 선전은 꼭 합시다.

9. 전국 여성노조 추진위와 연대

전국여성노조 분들께서는 출범과 더불어 전여대협과 연대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지금 여대생들은 여성노조의 예비조합원이자, 전국 여성 노동조합의 주체가 될 여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원천적으로 닫혀있는 취업문에 막혀 노동자가 되기보다는 실망실업자가 되고 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여성노조는 여대생의 실업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학운단위와 공동으로 여성의 취업실태를 조사하고 고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대생 신규실직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할 생각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간담회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에서는 전국여성노조와, 지역에서는 지역별 여성노조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성노조분들의 제안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첫째 29일 전국여성노조 출범식 참가단 조직화와 공동연대사업 조사단(가) 선포식

둘째, '여성노동자와 여성실업문제'에 대한 워크샵

'여성노동'문제를 공유하고, 여학운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성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후원단 캠프

하반기 동안 공동연대사업 조사단(가)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여성노조에 대한 교양을 진행하겠다고 하십니다.

넷째, 구직수첩 제작, 배포, 수거

기존의 양적인 설문조사로는 여학생들의 고용상 차별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기 때문에 질적인 조사를 위해서 여대생들이 어떻게 구직활동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할 수 있는 수첩을 제작 배포 수거하여 여대생들의 구직활동에 대해, 구직활동상의 차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모을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설문조사

대학생들에 대한 특채나 공채가 일차적으로 끝날 시기인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구직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생산과 국가와 정당에 요구하고 집회를 조직화하고, 기자회견등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성평등에 위배되는 기업을 '공동연대'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2000년 10대기업의 신규채용에 대한 모니터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에서 남녀비율등을 조사합니다.

이상은 여성노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연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이고 좋은 일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며 첫술에 배 부르려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실제 아직까지 우리 여대생들에게 여성노조라는 조직은 낯설고 단지 당신은 예비 조합원이라고만 강요한다면 공색해짐과 동시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성노조분들이 제안하신 만큼 간담회를 통해 우리 일꾼들이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현상과 형태에서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가 그 사회의 여성의 지위를 말해주는 근거의 하나로 되는 것처럼 이러한 여성노조의 건설과 그분들의 실천은 가공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연대의 계획을 결의하면서 함께 합니다.

▶먼저 연대의 형태로 시작하여 예비조합원의 형태로 여학우들을 조직하도록 상승시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선거 기간 동안 예비조합원을 모집하는 형태로 합니다.

<7>. 조직사상적 과제

★★반드시 꼭 한층씩 사업계획서의 <5. 조직사상과세 및 방안>를 읽고나서 이 문서를 읽기 바랍니다.

★★전여대협 총회자료집에 실린 전여대협 총노선의 <사상노선, 조직노선, 대중노선>도 읽고 이 문서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1. 총여학생회 자기 단위를 돌아봅시다.

- 대표자를 중심으로 조직사상적 단결력을 높이면서 투쟁하고 있는가?
- 일꾼들의 정세인식력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면서 사업하고 있는가?
- 사업을 진행할 각오가 서 있는가?
- 사업의 입안, 일꾼배치, 집행, 총화, 대책등의 조직운영은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
- 일꾼들은 대중속에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 (대중 장악력)?
- 일꾼들의 민중에 대한 자세와 관점은 어떠한가?

지금 조직적 상황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단위를 돌아보면 짊어지는 몇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후배들이 없다. 있는 사람도 힘들어 한다. 서로의 활동의 전혀 총화되지 않는다. 는 등의 현상은 대중관의 부재와 동지에 대한 믿음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의 마음을 읽고 대중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자기 운동의 정당성을 찾지 못하겠다는 패배주의 청산주의로 정리하고 있는 모습 혹은 일이 힘든 것 보다 일꾼들과의 감정적 대립이나 마찰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믿지 않고 있다고 단정짓고 풀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총화가 사업중심으로 위임분공된 것만 점검하고 말면서 사업작품이나 방법을 총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되지 못했던 이유에 있습니다.

따라서

- 구체적 자기대중을 반드시 만들고 챙기자
- 주체총화대회를 정형화해서 모든사업의 과정을 총화하고 간부개개인의 활동총화를 합니다.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은 주체총화의 자리에서 허심하게 그리고 맏짜게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동지에 대한 애정이 실리지 않고서는 먹히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한총련 9.10월 사업계획서의 회의의 규율을 반드시 지킵시다.

2. 여학일꾼 일주일 조직적 생활을 위한 요일별 제안

월요일: 전체 조례와 월요 인사

- 여학일꾼들은 모두 모임시다. 일주일 전체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각자의 계획을 내어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 아침 8:00에서 8:30 분까지 조례를 마치고 9:00까지는 일꾼들과 공유한 일주일 계획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 장소는 학우들이 많이 등교하는 문 앞 잔디밭 등에서 진행하고 바로 선전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요
- 내용은 어제 토론한 정세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화요일: 화요집회

- 주체적 입장에서 임하도록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서명운동 갑판을 옆에 끼고 연관성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요일: 수요일집회, 수요일선전전

- 서명운동 집중공간,

목요일: 연대 단위 방문하기

- 대학에서 만든 유인물이나 소식지가 있으면 가지고 가서 나누어 드리고 우리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당면한 정세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투쟁방도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만남이 되도록 합니다.

금요일: 금요일집회, 금요일 선전전

- 서울은 용산 미군기지
- 남내대협과 총청여대협은 군산미군기지
- 부경여대협은 하이리아 부대 앞
- 대기여대협은

토요일: 전체 주체총화대회

일요일: 학습과 토론

-정세를 기본으로 어제의 활동총화에서 단위에 시급히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를 여학단위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투쟁의 방도는 어떠해야 하며 그래서 여학우들을 만날 때 어떤 내용으로 만나야 하는지가 필요하다면 '식민지 시대 여성운동'을 본다든지 '미국과 여성문제' '군사문화와 여성문제' '주한미군의 만행과 사례'등을 추려서 보면 될 것입니다.

-학습은 집단토론으로 되어야 제대로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체 마련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습의 사전 준비를 잘 역분하는 사업적 조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토론 거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토론에 임합니다.

3. 대중속의로의 기치는 실천속에서...기본적으로 하루 3인의 학우는 만나야 겠지요

<8>. 시기별 일정 흐름

핵심 일정

- 10월 1일~4일: 가을 농활
- 10월 4일: 민족의 날 (원래는 10월 3일)기념대회
➔대학 총여학생회별 서명운동 3자 총화의 날
- 10월 7~8일(가): 총투표와 백만화도 행동의 날
- 9월 말 혹은 10월 초 각 대학 총여학생회 여성문화제 혹은 대동제 기간
- 10월 28일: 윤금이 기일 (10월 25일~10월 31 주한 미군 희생자 추모주간)
➔28일은 "반미의 날"(25일~31일은 반미 주간)

1시기 (개강과 준비기)

8월 말~9월 6일

●개강 준비와 개강 맞이 시기입니다.

●방중 평가를 마무리 짓고 학우들에게 방중 활동을 보고하는 시기입니다.

-반드시 합시다. 강의실 개강인사!! 일상적으로 학우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인식은 집회나 투쟁이 있을때에만 반짝 만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혹은 꼭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가야만 강의실 방문이다라는 강박관념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일상적인 학우들의 생활에 녹아있다는 인식은 개강인사에서부터 사소하게 싹터잡니다.

●전여대협 기지촌 활동을 마무리 짓는 시기입니다.

●통일선봉대와 8.15의 조직적 성과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바로 챙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반드시 제때 합시다.

●투쟁일정

-8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미일의 전쟁책동 분쇄와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투쟁대회

(집회 연설 조직화 / 3자 공동 서명운동 조직화 / 학교별 자주교류를 위한 준비 선전 의식화)

-9월 4,5일

:기지촌 활동 평가대회

2시기 (1차 총력기)

9월 7일 ~9월 22일

●내중 의식화 과제를 풀어내는 시기로 진행될 대중 홍보전에서 총여학생회의 자기 역할을 찾습니다.

●대중홍보와 함께 대중이 실천할 수 있는 방도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각 지역여대협별 의견개진운동)

①기존 활동 이후 총화를 내실있게 합시다.

●곧 있을 대동제나 여성문화제를 준비하는 시기로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조직화의 공간을 재쳐두고 실무 준비에 여념이 없게 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대대적인 선전의식화로 학우들과 함께 만드는 대동제 여성문화제를 계획합시다.

●김준배 열사 추모주간이 있습니다.

●투쟁일정

-9월 6일

:이 쯤에서 대학별로 총여학생회를 집중하여 여학일꾼 전진대회를 하고 힘있게 2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9월 10일

:전국 학교별 동시다발 개강투쟁 선포식

-9월 13-19일

:김준배 열사 추모주간

-9월 20-22일

:추석 귀향 투쟁

3시기 (대중실천기)

9월 23일~10월 9일

●여성문화제의 내용은 여학우들을 객체화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학우들이 직접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여성문화제를 계획합시다.

●민족의 날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을 총화합시다. 방법은 각 대학별 이북과의 교류단위에서 총화를 합의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광범위한 자주교류성사와 더불어 3자 연대 서명운동이 더욱 힘을 가질 것입니다.

●투쟁일정

-9월 27~10월 2일

:각 대학별 여성문화제등 집중

-10월 1~4일

:가을 농활

-10월 4일

:민족의 날

-10월 7,8일 (가)

:총투표와 백만학도 행동의 날

4시기 (조직적 결속기)

10월 10일 ~11월 3일

●윤금이씨 기일과 더불어 추모주간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간 주한미군 철거 투쟁과 반미 반전 투쟁을 총화하자

●윤금이씨 기일은 환타와 검은 바지 입기 혹은 기본적으로 분향소 설치와 리본달기 등을 하면서 주한미군 만행에 대한 상징적이고 입체적인 선전을 합시다.

●투쟁일정

-10월25일~30일

:윤금이 추모주간

-10월 28일

:윤금이씨 추모제 (주한미군 희생자 추모제)

-11 3일 학생의 날